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배포일자	2023년 10월 12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 예술회관	담당자	• 기획운영팀장 차영주 ☎420-2710 • 담당자 유은미 ☎420-273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화의 얼굴과 무용수의 몸으로 만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수궁가

- 10.27.~28.인천시립무용단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 -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 윤성주)이 자신 있게 선보이는 최신작 <Water Castle (워터캐슬) - 토끼탈출기>가 오는 10월 27, 28일 인천을 넘어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공연된다.

<Water Castle (워터캐슬) - 토끼탈출기>는 전승 ‘오구굿’의 스타일과 주제로 풀어낸 <만찬 - 진, 오귀>, 그리스비극 「오이디푸스」를 무용극화한 <비가(悲歌)> 등 창작 춤으로 감동을 선사해 온 윤성주 안무가가 판소리 5대가 중 「수궁가」를 과감하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국의 대표적 고전에 이 시대의 통찰을 담아 감각적 스타일로 창작하여 각자도생의 어른을 위한 현대적 무용극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고난도의 테크닉과 묵직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군무, 스타일과 개성이 확연한 주역의 캐릭터연기, 시대적 공감을 견인하는 원전의 과감한 재해석을 통해 별주부의 이야기는 ‘워터캐슬의 토끼탈출기’로 현대의 관객과 만난다.

어른을 위한 잔혹사로 재탄생한 고전 원작

모두가 꺼리는 업무에 휘말린 ‘워터캐슬’의 말단 직원 별주부, 신분 상승을 꿈꾸는 토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일신의 안위를 위해 토끼의 간까지 노리는 용왕까지, 속물적 욕망과 이기심으로 물든 캐릭터를 통해 작금의 세태를 돌아보게 한다.

용왕과 자라의 수궁은 철저한 계급사회로 현대 정치인들의 권력다툼처럼 보이기도 하고 토끼가 사는 산속 역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다. 고전 우화 속 세상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삶이나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결코 다를 바가 없다.

안무자 윤성주는 하나의 인물이 가진 다층적 성격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존재들을 그린다. 우화를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재미있게 풀어보는 동시에 현실을 깨우치라는 중용을 더했다.

수궁과 산속을 넘나드는 ‘별세계 판타지’를 구현하는 역동적 군무

은회색 수트를 입은 직장인으로 그려지는 용궁의 만조백관들, 용왕 앞에서 벌이는 어전회의는 기업의 회의처럼 커다란 테이블과 함께 한다. 상좌다툼을 벌이는 날짐승과 들짐승 역시 과감하고 정교한 현대적 움직임을 통해 파격적으로 표현했다.

간단한 이동으로 공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무대디자인, 고전의 느낌보다는 현대적 스타일을 표현하면서도 캐릭터성을 높여주는 의상이 더해져 무용수들의 춤과 함께 물속과 산속을 오가는 새로운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한다. 판소리 원전이지만 전통음악과 더불어 현대적 리듬과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병용, 현 시대의 감각을 자극한다.

육중한 테이블이 20미터 대극장을 중횡하며 펼치는 스펙터클. 육해공을 넘나드는 무용수들의 강렬한 움직임은 이번 작품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되 결코 가벼운 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Water Castle’ 로 시작하는 문화적 글로벌라이제이션

1984년 창단 이래 한국 전통무용의 전승 및 이 시대의 춤 창작 활성화를 목표로 달려온 인천시립무용단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제9대 윤성주 예술감독과 함께 만들어 낸 창작 대작과 다채로운 기획 공연, 춤축제 등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무용단으로서 완성도 있는 작품, 폭넓은 활동으로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5년 연속 외교부 선정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이자 도시 외교의 주역으로 미국 한인 이주 100주년, 120주년 기념 하와이공연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칠레, 에콰도르,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외 공연을 주도하는 등 국내외에 인천시립무용단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개별이 곧 세계의 보편이 된다는 문화적 글로벌라이제이션 개념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가는 K-pop에서 시작하여 K-컬처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립무용단이 추구하는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인천 무대를 넘어 고양으로 탈출한 토끼를 찾는 이번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는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다. 쉽 없이 달리는 토끼와 꾸준한 거북이의 집념으로 질주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행보와

답아있다.

우화의 얼굴과 무용수의 몸으로 만나는 새로운 수궁가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로 지역을 넘어 한국 춤의 중심에 설 인천시립무용단의 춤을 확인해 볼 때이다.

인천시립무용단 특별공연 <Water Castle - 토끼탈출기>

- ☐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20:00 / 28일(토) 17:00
- ☐ 장 소 :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 ☐ 관 랑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 공연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032-420-2788
-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무용단

[붙임1]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공연 사진



공연 사진